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

Liberal Democracy and the Church Politics

이국운 (Kuk-Woon Lee)**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Protestant church politics in Korean political context. In recent years, many of Korean Protestant intellectuals repeatedly expressed a kind of pessimism on the political future of Korean Protestantism. Though echoing their pessimism in many senses, the author tries to secure some possibility to make Korean Protestants be more responsible in political arena. For this purpose, the author reinterprets the political meaning of Protestantism from just religious matter to more political one. According to him, the Protestantism, the Reformation itself, was and is a kind of political movement toward the authentic Liberal Democracy or Radical and Liberating Democracy. In this regard, it is very evident that Protestant church politics has contributed tremendously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However, after the main field of political experiment moved to the Nation-States, church politics became marginal and lost political importance sooner or later. Since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has been heavi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Nation-State building during the last century, Korean Protestants tend to be more politically aggressive than they usually assume. But the problem is that the Liberal Democracy in their church is not enough to be compared to the Liberal Democracy in their country. In order to overcome the gap between church politics and national politics, the author suggests that we the Korean Protestant should move the main field of political experiment from the Churchian networks to the Christian associations as soon as possible.

Key Words: liberal democracy, church politics, Protestantism, Reformation, Korean church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4일 최종수정, 3월 6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University) 법학부 교수,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로 558, lkwoon@handong.edu

- I. 정치적 책임의 원칙
- II.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의 운동
- III.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
- IV. 경건한 세속정치의 붕괴와 교회 정치의 변화
- V.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의 관계

I. 정치적 책임의 원칙

이 글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와 함께 공동체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프로테스탄트들의 현실을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논의의 주제를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로 잡은 것은 이와 같은 실천적 지향을 투영하기에 그 주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논의의 성격상 이미 5백 년이 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후의 역사적 경과를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천학(淺學)의 처지에 매우 과도한 과제이기도 하나, 앞서 언급한 위기의 현존을 변명 삼아 무모한 용기를 내보기로 한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사회 안팎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성숙도에 관해서는 비판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몇 차례의 전국적 선거에서 소위 기독교 정당들 연달아 국회 의석 확보에 실패한 이후, 특히 과격하고 편향적인 정치적 언사에 대한 비판과 외면이 일상 담론의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교회 세습이나 목회자들의 추문 등을 둘러싼 교회 정치 내부의 혼란상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기독교 사회 내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분명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지고도 제도권 교회조직에 참여하기를 마다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 현상이 시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모두 특히 젊은 세대에서 프로테스탄트 인구의 현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자문(自問)에 대하여 대답이 궁색한 까닭인지, 최근 들어 기독교 사회 안팎에는 차라리 정치를 접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더욱 본질적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퍼져가고 있다. 이를테면, 생명과 인권, 배려와 연대의 가치들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속물근성에 쫓

은 세속정치 또는 정치 그 자체와 절연하는 곳에서부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다(김두식, 2010). 이들에게 지난 이십여 년간 로마가톨릭 교회가 봉건적 군주제의 조직 구조를 고수하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큰 대중적 호감과 영향력을 얻게 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치권력에 초연한 듯한 외관 속에서 초월적 가치들 고리 삼아 세속정치에 시의적절하게 개입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모델은 갈수록 꼬이는 프로테스탄트들의 현실에 비추어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¹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로부터의 철수’ 또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벤치마킹은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과연 바람직한 정치적 대안일 수 있을까? 주지하듯이 이 문제에 답하려면, 세속정치의 본질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토론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반되어야 한다(대표적으로 요더, 2008 특히 1장). 이 자리에서 그 일단을 펼칠 여유는 없으므로 간단히 개인적인 입장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나는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속정치에 대한 소명을 출발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정치신학적 토론을 진심으로 염원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서, 로마가톨릭 교회의 모델을 염두에 두는 한, ‘정치로부터의 철수’가 합리적인 정치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1517년 발발한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래 프로테스탄트들은 책임의 문제에 관하여 고유한 이해를 진전시켜왔다. 그 핵심은 무엇보다 인간은 세상사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로서, 소명, 천직, 청지기 등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중심개념들은 모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 이 맥락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신적 주권과 관련하여 받아들인다. 인간의 정치적 소명은 신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간은 신 앞에서 세계에 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정치적 책임의 범위를 제도적 교회나 기독교 사회 바깥으로 확장했다. 그들의 정치적 책임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공동체와 역사 및 세계 전체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Niebuhr, 정진홍 역, 1983).

정치적 책임의 원리를 염두에 둘 때, ‘정치로부터의 철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명확하다. 정치로부터의 철수는 과연 프로테스탄트들이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가? 시야를 제도적 교회 안쪽으로 좁혀서 관찰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성도가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조직이다. 수십만의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있고, 엄청난 규모의 교회 재산이 있으며, 학교와 병원과 언론 등 관련된 조직들만도 그 숫자를

1) 특히 십여 년 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함께 한국 사회에 밀려왔던 자숙과 자성, 일치와 회복의 물결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이러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 바 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지금까지 별다른 타개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 속에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신조(creed)가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수호하는 시스템도 존재한다. 19세기 말부터 친미개화반공노선을 기치로 근대적인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앞장서 온 역사와 자긍심이 있다. 비록 최근 들어 정치적 성숙도에 관하여 안팎으로부터 비판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영광과 기억까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지 제도적 교회의 내적 요인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하루아침에 정치로부터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기 어렵다. 이들은 이미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더욱 정확하게 표현해서, 제도적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과도하게 정치화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세속정치로부터 후퇴시키는 것이 정치적 목표라면, 이는 반드시 제도적 교회는 물론 기독교 사회에 그 바깥 전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더욱 잘 부담하는’ 대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질서정연한 후퇴가 아니라 무책임한 회피는 오히려 근본주의적인 반동을 초래하여 제도적 교회나 기독교 사회 안팎에서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같은 논리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속정치에 개입하는 것 역시 정치적 책임의 관점에서 기획되고 정당화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개입과 후퇴는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합당한 수준의 정치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정치세력들과 신사협정을 도출하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의 신사협정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기 위한 공적 협약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문제에 관련하여 지난 500년 동안 프로테스탄트들은 국가를 비롯한 정치공동체들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다른 정치세력들과 정치적 책임을 분담하기 위하여 공적 협약으로서 ‘헌법’을 정치의 중심에 놓는 정치적 전통을 발전시켜왔다.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Protestant constitutionalism)로 지칭되는 이 흐름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서 발원하여 오늘날 국가를 비롯한 정치공동체들에서 흔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이국운, 2007 ; 이국운, 2010).

이 글은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트 정치의 맥락 속에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처한 위기 상황을 염두에 둔 채,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의 관계를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 앞서 말했듯,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양극화와 함께 공동체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프로테스탄트들의 현실을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타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으려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연결점을 설명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크게 세 가지 맥락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발생하여 제도화, 분화, 체계화되는 맥락. 둘째, 그 성과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제도적 결실로 이어지다가 어느 시점부터 프로테스

탄트 교회 정치와의 연계가 축소되거나 단절되는 맥락, 셋째, 이와 같은 재검토를 전제로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맥락. 이하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이 문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프로테스탄티즘과 자유민주주의 운동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흔히 체제이념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인다. 체제 수호를 명분 삼아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중하게 맥락을 구별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갈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 즉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그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민주주의, 즉 정치공동체의 자율 통치를 최선의 정치형태로 내세우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그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흥미롭게도 정치적 현상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이 두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자의 모순적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존하고 또 지속하려는 특징을 가진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매우 이질적인 두 이데올로기의 결합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현상적 특이점이다(Bobbio, 황주홍 역, 1992).

이와 같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적 공존은 근대사회(modern society)라는 특정한 정치적 조건에서 추동되었다. 지난 세기 서구 지성들은 근대사회의 본질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해 왔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그 줄기를 두 가지로 간추려 보고자 한다. 하나는 합리주의·계몽주의·시민혁명의 흐름에서 보듯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규범적 전제가 보편화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혁명·기술주의·실증주의의 흐름에서 보듯 인간 상호 간의 사회적 관계 형식이 갈수록 익명화·기호화되는 것이다. 이 양자의 흐름이 중첩되는 근대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익명의 왕들로 구성된 사회’로 비유할 수 있다. 근대사회에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욕망과 민주주의 정치이데올로기가 끝없이 확산되며, 이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하여 증폭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을 통해 등장했다. 헌정주의란 헌법을 정치적 사유와 실천의 중심에 놓는 정치적 기획으로서 인류의 성숙한 문명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왔으나, 앞서 말한 근대사회의 독특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는 특히 헌법을 통하여 자유의 이념과 민주주의의 이념을 모순적 길항 관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근대적 헌정주의로서 자유민주주의는 절대주의적 주권론과 부정부주의적 무주권론을 모두 거부하면서, 헌법과 법률의 이중체계를 중심으로 법의 지배를 내세운 제한주권론을 제도화했으며, 그 결과는 국민주권, 성

문헌법, 기본권 보장, 삼권분립, 대의 정부, 민주적 연방주의, 독점금지, 국제평화주의 및 국제인권 보장, 생태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헌정주의적 혁신의 연속이었다(이국운, 2010; 이국운, 2019).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이자 근대사회 속에서 추진되는 헌정주의 프로젝트로 이해할 경우, 서구의 역사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원점을 이룬다는 점은 명백하다.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은 ‘하나님의 형상’, ‘오직 믿음’, ‘만인사제론’과 같은 교리의 전면화를 통하여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여기는 규범적 전제를 보편적으로 내세웠고, 나아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투쟁했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로테스탄티즘은 믿음과 자유를 바탕으로 차별을 허물고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는 로마가 톨리시즘에 맞서서 만인사제설과 직업소명론을 주창했고, 이를 통해 성(聖)과 속(俗)의 전통적인 구분을 붕괴시켰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른바 ‘존재의 대연쇄’에 따른 위계질서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에서 근원적인 평등을 정초하는 새로운 질서를 끌어냈다.

이를 위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은 ‘오직 믿음’의 토대인 가능성으로서의 자유에 터 잡아 인간 존재의 평등을 정초하는 ‘보편적-정언적 자유’를 근본 규범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신학적 전복은 구약성서 초두의 선언, 즉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imago Dei)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명제로부터 이루어진다(창세기 1: 26-7). 오늘날에는 이 선언을 인간 존재의 존엄과 가치를 초월적 인격성에서 근거지우려는 관점에서 주로 이해하지만,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신적 형상의 특징인 이성적 사유 능력이 모든 인간에 부여되었음을 정당화하는 측면이 결정적이었다(Waldron, 2010). 요컨대, 프로테스탄티즘은 모든 인간 존재에 ‘신적 형상’이 내재한다는 신학적 논거를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인격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시 이로부터 모든 인간의 평등을 정초하고자 했던 셈이다.

정치적 책임의 근거와 관련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은 자유에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정치적 책임의 방식과 관련하여 프로테스탄티즘은 민주에 근본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 점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자유의 이념과 민주주의 이념의 모순적 길항 관계라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에토스를 기독교 신앙의 차원에서부터 정당화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은 흔히 ‘하나님의 형상’과 ‘만인사제주의’로 요약되는 신학적 본질, 즉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속에서 어떠한 중개 없이도 신적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혁명적인 신앙에서 출발한다(Luther, 2003). 이 신앙 속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개개 인간의 정치적 자유를 근본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에서 근거 지우며, 나아가 자유를 그 자체로 정당화한다. 자유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프로테스탄티즘은 정치적 자유의 제도적 실현을 ‘규범적으로’ 요구한다. 프로테스탄트 정치 신학은 원초적인 평등(radical equality)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에 당위로서의 위상을 부여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제도적 교회나 가부장, 귀족집단 등이 통치에 관한 신적 위임을 독점한다는 모든 종류의 특권의 논리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모든 인간이 통치에 관한 신적 위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원초적인 평등의 논리를 배치한다. 그리고 이 원초적인 평등의 논리를 평등한 인간들의 자율 통치, 즉 데모크라시만이 정당한 통치가 될 수 있다는 정치적 자동성(political autonomy)의 이념에 연결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이 혁명적 정치 운동의 에토스를 가지는 까닭은 그 속에서 초월적 자유가 원초적인 평등 및 민주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멀리 고대 아테네까지 소급되는 서구의 정치적 전통에서 데모크라시는 민주정치, 즉 자유인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에 기초한 공화주의적 합의정치를 묘사(descriptive)하는 용어였으나²,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를 정면으로 역전하며 규범적(prescriptive) 용어인 민주주의, 즉 데모크라시즘으로 고양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민주주의를 ‘좋은(the good)’이 아니라 ‘옳음(the right)’의 관점에서 이해했고, 그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은 출발점에서부터 끊임없는 확대와 심화, 그리고 자기혁신이 아니고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에 의한 자율 통치’라는 이념과 연결되었다.³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초기, 종교혁명가들이 경험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론과 만인사제주의가 초월적 자유와 원초적인 평등으로 연결되는 급진적 자유민주주의의 실험이었다. 자유와 민주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감격을 그들은 공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종교혁명사의 대표적인 저자인 오즈맹은 독일 종교혁명 초기의 팸플릿들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Ozment, 박은구 역, 2004: 118-119).

“...이처럼 종교혁명 초기의 팸플릿들은 성직자와 평신도 및 유식자와 무식자 사이의 모든 영적 차별이 신속하게 소멸되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교 사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성서의 새로운 권위에 힘입어 평신도들은 예컨대 교회의 지배권, 법령, 파문 위협 등과 같은 교회의 전통적인 강제력들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으며, 이들을 의미 없는 경고라고 일축하게 되었다. 평신도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 간에 여하한 영적 차별도 있을 수 없었고, 우열을 나누

2) 데모크라시는 원래부터 자유로운 폴리스의 문명인들(특히 성인 남자들) 사이에 시도될 수 있는 여러 정치방식 가운데 다수의 지배가 모두를 위해 관철되는 특정한 방식을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고방식에서 민주정치는 예컨대 군주정치나 귀족정치보다 ‘좋은’ 것, 즉 문명적인 것일 수는 있어도 ‘옳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3) 이 점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말하는 세계-형성적 기독교(World-formative Christianity)의 재탄생이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 유파 중에도 특히 칼뱅주의가 이런 특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Walterstoff, 홍병룡 역, 2007: 1장 ‘세계 형성적 기독교’).

“는 어떤 구분도 없어야 했으며, 단지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세례가 있을 뿐이었다...”

물론 이러한 감각이 자유의 이념과 민주의 이념에 담긴 모순적 길항 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은 양자의 공존, 타협, 접목, 조화의 가능성을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파악하는 초월적 신앙으로부터 찾고자 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출발점에서부터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라는 모순적 경향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두 방향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재구성하려는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운동이었다(Walzer, 1982).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테스탄티즘의 급진적·발본적인 경향성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일정한 제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기독교회를 신자들의 보이지 않는 공동체(invisible church)로 정의하자, 현실에 존재하는 정치적 권위의 정당화에 난점이 생겼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기치 아래 로마서 13장에서 성 바울이 제시했던 ‘모든 권위는 신으로부터 유래한다’는 명제에 의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와 같은 주의주의적 정당화는 곧바로 로마가톨릭 교회 내부의 주지주의자들이 이끈 반동 종교혁명의 공격을 받았고, 로마가톨릭 군주에 맞서 폭군방벌론을 주장하던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칼뱅주의자들에게까지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⁴ 실천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초기부터 내부의 교파적인 차이 문제에 시달렸다. 16세기의 유럽을 휩쓴 종교전쟁은 처음에는 프로테스탄트와 로마가톨릭 사이에서 발발했지만, 오래지 않아 프로테스탄트 내부의 투쟁으로 변졌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신앙의 자유에서 출발하여 민주주의를 근거지웠으나, 실제로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진리 투쟁의 문제에 이르자 다수자가 소수자를 억압하는 반(反)자유주의의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웠다(노명식, 1991: 3장).

이에 대한 프로테스탄트들의 대응책은 일차적으로 구약성서 및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 자신들이 가진 것보다 확실히 더 ‘나은’ 정치형태를 추구하려는 시도였다. 구약성서의 이스라엘 정치사를 토대로 신법 앞에서의 맹약(covenant)이나 그 맹약의 내용을 담은 성문헌법, 연방주의적 조직 형태, 제사장-왕-선지자의 권력 분립 등을 도출하거나, 유럽 각국의 정치사에서 이른바 고대 헌법(ancient constitution)을 확인하고 그리스-로마 이래의 혼합정체(mixed government)론을 부활시키는 등의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성되었다.⁵ 물론 고전적 헌정주의를 부

4) 존 위티는 이 과정에서 칼뱅주의는 멀리 로마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권리 사상을 프로테스탄트적 자유의 이념과 결합하여 후술하는 ‘자연권 공화국’으로 이어질 정치적 혁신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위티 2015).

5) 존 위티는 이 점을 네덜란드 공화국과 영국 청교도 공화국의 수립과정에서 칼뱅주의 정치신학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Witte, 정두메 역, 2015: 3-4장). 지난 한 세대 동안 이 시기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대체로 자유주의적 관점과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철지난 대립을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극복하려는 방향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대표적으로 조승래, 2010). 그러나 정작 서구 근대의 당시 상황에서 공화주의 또는 고전적 헌정주의의 부활은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래의 문명적 혼돈을 넘어서려는 맥락에서 특히 칼뱅주의와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점에 관해서는 틴 스킨너와 마이클 주커트의 설명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Skinner, 박동천 역, 2012 ; Zuckert, 1994).

활시키려는 이러한 접근으로 자유와 민주의 초월적 정당화에서 유래하는 프로테스탄티즘 내부의 근원적인 긴장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통치에 참여하는 집단(demos)은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보다 항상 적을 수밖에 없다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불일치’ 문제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정당화하는 이른바 ‘권리를 가질 권리’ 또는 ‘타자의 권리’ 문제와 함께 지금까지도 여전히 결정적인 난문(難問)으로 남아있다(Dahl, 조기제 역, 1999:8-9장).

프로테스탄트 정치 운동은 이 문제를 신자들의 공동체(교회)에 정치적 모범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이는 신자/비신자, 교회/세상, 기독교세계/이교도세계 등과 같은 비대칭적 이분논리들을 내세운 뒤 후자를 포함하여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전자에 일차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로서, 교회의 목적을 섬겨야 할 그 바깥, 즉 비신자-세상-이교도세계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이념과 연결되는 논리였다. 따라서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라는 모순적 경향성을 전제로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재구성하려는 급진적이고 발본적인 정치 운동은 좁은 의미의 제도적 교회를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결국 그 바깥의 세계 전체를 재구성함으로써 기독교 사회(Christian society)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정중훈, 1999). 이 과정을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과정을 조감하면서 간추려 보자.

III.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은 기독교가 이미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체제 종교로서 확립된 가운데, 기독교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촉발되었다는 독특성을 지닌다.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당시, 로마가톨릭교회는 모든 측면에서 기독교 정치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따라서 프로테스탄티즘은 기독교 정치공동체의 지배권을 일부 지역에서라도 빼앗아 오는 경우 그와 같은 조건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테스탄티즘은 마르틴 루터 이후 200년가량 북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일정 지역에서 쉽사리 기독교회 및 기독교 정치공동체의 주류가 될 수 있었다. 이처럼 당시까지 1500년에 걸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었던 종교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약성서의 혁명적 메시지를 기독교 정치공동체에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다.

로마가톨릭 교회의 존재를 부정한 정치적 공백 위에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상하고 실현해야 했다는 점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과정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전사(前史)로도 볼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관점과 입장에 따라 자유와 민주의 동시적

추구를 위한 다양한 변용을 시도하고 또 정당화했으며, 그 경험은 이후 주권적 국민국가를 무대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위한 자료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실험은 아마도 19세기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또 다른 실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시도된 정치실험이었을 것이다. 뒤에 설명하듯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실험적 활력을 잃고 있지만,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언젠든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로마가톨릭 교회와 비교할 때, 프로테스탄티즘이 가져온 교회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⁶ 하나는 근본적으로 사제들의 조직인 로마가톨릭 교회의 조직 형태에 비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모든 신자를 동등한 자격의 구성원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비유컨대,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라면, 후자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유일한 보편교회로 자처하는 특징을 내세우는 것에 비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모든 제도적 교회를 보이는(visible) 교회로 간주하고 유일한 보편교회를 보이지 않는(invisible) 교회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제도적 교회, 즉 보이는 교회의 다수성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만 했고, 흔히 교파 또는 교단으로 일컬어지는 이들 사이의 관계 정립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 적어도 네 개의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들을 제기한다. 첫째는 종교적 의례를 나누는 개개의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를 정치적 공동체들로 재구성하는 과제이다. 이는 성례를 집전하는 사제들만을 교회조직으로 보고 그 밖의 신자들을 그 바깥에 배치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다. 둘째는 이 개개의 프로테스탄트 정치공동체들을 신조와 교리를 공유하는 하나의 조직체로 연결하는 과제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작업은 교파 또는 교단의 형태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성서해석을 통해 특정한 프로테스탄트 신조와 교리를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적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기구(신학교)가 자리를 잡았다. 셋째는 이와 같은 복수의 교파 또는 교단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정치적 과제이다. 로마가톨릭 교회와 달리 특정한 제도적 권위의 우위를 부정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입장에서 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넷째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와 그 바깥의 세속 세계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정치적 과제이다. 이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사회 속에 존재하는 종교적 권위 중 하나로 확립하는 문제인 동시에 세속 세계의 정치적 권위, 경제적 권위, 학술적 권위, 사회적 권위 등과 제도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수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네 차원의 정치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프로테스탄티즘은 결코 로마가톨릭 교회를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

6) 오컬티즘(occultism)은 ‘감추어진 것’, ‘비밀’ 등을 뜻하는 라틴어 ‘occultus’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는 보통 경험이나 사고로 파악할 수 없는 신비적, 초자연적 현상을 믿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시사상식사전, 2022).

주지하듯 프로테스탄티즘은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하여 애초에 성서를 유일한 권위로 놓은 뒤, 오로지 성서의 합리적인 해석과 체계화에 의존하여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McGrath, 2007: Part 2).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신정주의적 기획을 추진했던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프로테스탄트 신정주의는 ‘성도들의 혁명’을 통해서 성서적 합리성에 따라 구성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가지고 정치 그 자체를 대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Walzer, 1982). 신정주의 기획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정(正)이요 진(眞)이며, 그 바깥의 정치는 부(不)요 위(僞)로 관념되고, 프로테스탄트들은 전자를 통해 후자를 극복·대체할 소명을 부여받은 혁명적 전위집단으로 이해된다. 마이클 왈저가 말하듯이, 프로테스탄트 신정주의는 서구 근대정치사의 한 축을 이루는 정치적 급진주의(political radicalism)의 원형이다(Walzer, 이국운 역, 2017).

이처럼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초기에 주도한 것은 성서적 합리성을 전면에 내세운 신정주의적 기획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급진적 칼뱅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했던 17세기 영국의 청교도혁명이다. 청교도들은 기독교 정치공동체 내부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통치 권력을 장악한 뒤, 신약성서의 혁명적 메시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면서 청교도 신앙의 국교화를 추진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임희완, 1985). 그러나 통치 권력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신정주의적 기획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청교도혁명의 주역들은 예상치 못한 난제에 부딪혔다. 통치 권력은 속성상 다른 교파 또는 교단의 프로테스탄트들이나 비(非)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비기독교인들과 인본주의자들을 포함하여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는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⁷ 나아가 곧이어 벌어진 청교도혁명의 실패와 좌절은 급진적 칼뱅주의를 포함한 프로테스탄티즘 전체를 더욱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자칫하면 종교전쟁의 처참한 혼란을 재연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성서적 합리성과 함께 자연적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에 기울어지게 된다. 지난 세기 초,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관계를 탐색하는 가운데, 현세적 금욕주의의 종교적 토대를 분석했던 대목은 이 점에 관하여 가장 잘 알려진 사례이지만,⁸ 유사한 흐름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과정에서도 발생했다. 그 가운데 현정주의의 근대적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프로테스탄티즘 내부에 관용, 즉 톨레랑

7) 이러한 지난한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청교도혁명의 성공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적으로 헌신한 인물은 단연 존 밀턴이다.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에 담긴 인식론적 개인주의를 이룬바 일인일교회주의까지 전개하면서 그 기초 위에서 『아레오파기티카』를 저술하여 언론과 사상의 완전한 자유를 설파한 밀턴의 생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박상익, 2008 ; Zuckert, 1994: Ch.3).

8) 막스 베버에 따르면 칼뱅주의자들은 성서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은총의 법칙성 또는 구원의 법칙성을 예를 들어 엄격구원에정설의 형태로 확인한다. 하지만 문제는 성서적 합리성을 아무리 정교하게 체계화해도 구원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베버는 리처드 박스터를 비롯한 청교도들이 일상적 삶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형성되는 자연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음을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칼뱅주의자들의 적극적인 해석은 자연적 합리성이 성서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등장한 극적인 사례였다(Weber, 박성수 역, 2006 ; 이국운, 2020).

스라는 특수한 정치적 규범이 형성된 점이다(Locke, 2018 ; 김용환, 1997: 3장).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은 각자의 신조를 문서로 고백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구분하여 교리적 공통분모를 찾아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독특하고도 새로운 정치적 규범, 즉 톨레랑스를 자발적으로 형성했다.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신정주의 혁명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그 내부의 진리 투쟁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규범적 계기를 확보했음을 뜻한다.⁹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진행과정에서 지역적, 신학적, 민족적 경계선을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들은 톨레랑스의 정치적 규범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를 기초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갈라진다. 첫째는 ‘분리주의’(separatism)로서 신정주의적 경향성을 고집하다가 실패한 이후, 통치 권력의 추구 자체를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테면 순수하고 엄격하면서도 열광적인 초대교회 운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전형적인 예는 청교도혁명의 급진파들이 신정주의 정치 운동의 실패를 겪은 다음, 평화주의나 천년왕국을 내세워 급진적 분리주의자들로 변모하는 과정이다. 둘째는 ‘이원주의’(dualism)로서 이는 한마디로 세속 세계와 영적 세계의 구분을 정치와 종교의 구분과 대응시킨 다음 프로테스탄티즘을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 종교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독일 북부의 루터파나 영국의 성공회가 통치 권력과 공존하기 위하여 채택한 노선이다. 셋째는 ‘관계주의’(relationism)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정치와 종교의 구분을 종교적 교리는 물론 정치공동체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까지 규정한 다음 프로테스탄티즘을 교회와 사회를 끊임없이 개혁하는 종교적·이념적 동력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한때 스코틀랜드 등지에서 국교를 차지했던 칼뱅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지위를 포기한 뒤 위에서 말한 급진적 분리주의자들을 의식하면서 형성했던 방향이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세 가지 방향은 각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이 교회 정치의 세 가지 유형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했다.¹⁰ 우선 분리주의 노선은 프로테스탄트 정치공동체를 세속 정치공동체와 분리된 자치공동체로 재규정했으며, 각 자치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권위 주체로 인정했다. 이른바 ‘회중’(congregation)의 출현이다. 회중의 자율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이 노선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치의 방향

9)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톨레랑스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게 로마가톨릭주의와 이에 극단적으로 맞서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대립 축에서 형성된 프랑크적 맥락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대표적으로 홍세화, 2009). 톨레랑스에 관하여 프로테스탄트 정치신학 및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비교적 온건하면서도 실용적인 노선을 걸어온 영미권의 맥락에 대한 보충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10)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유형에 관한 이하의 서술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나 교파적 경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일반 신자들에게는 의외로 낯설게 다가온다. 여기서는 주로 다음 세 글을 참조했다(한재동, 2012 ; 주인돈, 2011: 9장~10장 ; Hall, 1994).

자체는 명백하다. 다음으로 이원주의 노선은 프로테스탄티즘을 공식적인 국가 종교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로마가톨릭 교회의 사제 조직을 대체하는 프로테스탄트 목회자 조직을 구성했다. 이 집단은 대체로 관료제의 구조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신학 및 성례에 대한 종교적 전문성을 공유하고 전수하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주축이 되었다. 조직의 차원에서 이 노선을 대표하는 제도적 상징은 바로 ‘감독’(episcopal)의 존재이다. 회중과 감독이 각기 프로테스탄트 교회조직의 맨 아래와 맨 위를 표상한다면, 마지막으로 관계주의 노선은 이 둘 사이에 위를 향하여 아래를 대표하고, 아래를 향하여 위를 대표하는 독특한 매개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 핵심은 회중에 의해 선출된 대표이면서도 동시에 그 회중을 견제하는 임무를 지니는 상호매개적 권력으로 종교적 엘리트 의회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무게 중심은 아래와 위, 그리고 중간에 존재하는 종교적 엘리트 의회(presbytery, synod, general assembly)에 놓이게 된다.¹¹⁾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이와 같은 갈라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구 근대에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바탕을 이루는 지적, 이념적, 제도적 자원을 제공했다. 분리주의-회중주의는 인민주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反독재 및 분권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이원주의-감독주의는 교회와 국가의 주권적 분리, 관료적 전문성과 효율성의 요청을 뒷받침했으며, 관계주의-의회주의는 의회를 통한 대의정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특히 사법의 독립으로 대표되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이원주의-감독주의의 영향은 뒤에 설명하듯이 주권국가가 모더니티 정치를 수행하는 기본 단위로 굳어지고 그 종교적 기초를 이루었던 국교주의가 현격히 약해지면서 갈수록 프로테스탄트적 기원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 실증적 주권국가의 이념 그 자체로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두 흐름은 서로 각축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사회-시민사회-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미합중국 등을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동력을 이루었다.

결과론이지만, 앞서 말한 세 가지 방향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서 가장 우세해진 것은 ‘관계주의’이다. 개개의 정치공동체 속에서는 분리주의자들 역시 어떻게든 통치 권력과 관계를 맺어야만 했고, 프로테스탄티즘이 국교의 지위를 잃은 다음에는 국교주의자들마저도 어쩔 수 없이 관계주의에 가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관계주의 모델의 정치적 과제에서 핵심적인 고민거리는 기독교 정치원리와 명시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면서 정치공동체 안팎에서 다른 종파의 프로테스탄트들이나 비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 나아가 비기독교인들과 인본주의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관계주의는 이에 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앞서 말한 프로테스탄트 교파들 사이의 새로운 정치적 규

11) ‘분리주의’, ‘이원주의’, ‘관계주의’를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이국운, 2020).

범, 즉 톨레랑스를 정치공동체 전체에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은, 명예혁명 이후 존 로크가 주장했듯이,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종교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수립된 정치조직인 민주공화국에 맡기는 것이었다 (Locke, 2018).

이처럼 새로운 정치적 규범을 바탕으로 관계주의는 점차 ‘엘리트의회주의 vs 자치공동체주의’를 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우선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엘리트의회주의는 도도한 흐름을 형성한다. 이 분파는 자유민주주의의 당위와 함께 그 현실적 불가능에 주목하면서, 죄의 편만한 영향력, 이성의 인식적·실천적 한계, 자유민주주의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등을 냉정하게 통찰한다(Hall, 1994). 그리하여 이 입장이 내세우는 것은 결국 엘리트들에 의해 구성되는 대의민주정치의 세련된 구성과 운영이다. 자의적 지배, 차이의 배제, 통치자와 피치자의 불일치 등 자유민주주의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현실적인 방안은 훈련된 엘리트들로 의회를 구성한 뒤 대의정치의 미묘한 균형을 달성하는 것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교회, 국가교회, 세계교회를 연결하는 엘리트의회의 중층구조는 감독제도의 구조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정치제도이다. 엘리트의회주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대표선출과정과 대표들의 정책결정과정으로 나눈 뒤 중점을 후자, 즉 선출된 엘리트들 사이의 공화주의적 합의정치에 둔다. 압도적 다수의 프로테스탄트는 엘리트의 선출과정에만 개입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에 비하여 침례교를 비롯한 회중 교회 전통에서 성장한 자치공동체주의는 엘리트의회주의의 성과와 함께 그 어두운 측면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엘리트의회가 대의민주정치체제를 현명하게 운영하기보다 스스로 패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인간의 근본악과 자유민주주의의 딜레마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에토스인 자유민주주의적 혁명이념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의민주정치를 내세우는 엘리트의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이라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출발점에서 보면 후퇴 또는 타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치공동체주의는 엘리트의회주의를 반대하면서, 정치공동체의 구성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치공동체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개의 신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자발적인 동의를 기초로 새로운 정치, 즉 자유민주적 교회 정치를 경험할 가능성은 오로지 자치공동체에서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어떤 경우든 자치공동체의 우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역사에서 엘리트의회주의와 자치공동체주의의 대립과 항쟁은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다양한 시도와 함께 풍성한 정치적 성과를 생산해냈다. 엘리트의회가 패권화의 경향에 취약하다면, 자치공동체는 쉽사리 지리멸렬해질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정치적 실험이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는 대표기구의 중층구조화 및 대표기구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포함하는 민주적 대의정치의 여러 가지 제도들로 결실되었다. 이 제도들은 대부분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헌법 속에 포함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치적 영향은 세속정치에도 파급되었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엘리트의회주의는 대의민주정치의 제도들을 공급했고, 자치공동체주의는 동의에 의한 지배, 즉 사회계약의 이념을 공급했다.

특히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정치과정 및 미합중국의 건국 과정에서 이 두 노선의 치열한 경쟁은 오늘날 흔히 ‘고전적 공화주의 vs 근대적 자유주의’로 해석되는 정치적 대립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를 거쳐 ‘자연권 공화국’(Natural Rights Republic)이라는 독특한 모습의 국가가 탄생했다. 천부적 자연권에 따른 ‘플레랑스’와 혼합정체 및 법의 지배, 그리고 이 모두를 규정한 성문헌법을 정치공동체의 중심에 놓는 이 새로운 국가는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이 300년간의 실험을 통하여 산출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중간 결산이나 다름없다(Zuckert, 1996: 202-243). 그 때문에 ‘자연권 공화국’ 내부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와 관련된 정치적 긴장이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미합중국의 경우, 매디슨 민주주의, 즉 공화주의적 엘리트대의정치의 이념은 엘리트의회주의에 가까운 칼뱅주의에 연결되었고, 이에 맞서는 제퍼슨 민주주의, 즉 자연권 중심의 인민적 평등주의는 자치공동체주의에 가까운 감리교와 침례교에 의존적이었다(Pearcy, 홍병룡 역, 2006: 521-523).¹²

IV. 경건한 세속정치의 붕괴와 교회 정치의 변화

마이클 왈저는 청교도혁명 이후 왕정복고가 이루어진 다음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이유를 이룰테면 그 좌절이 아니라 성취에서 찾는 듯하다. 성도들의 혁명으로서 청교도 운동은 성서적 합리성의 우위를 전제로 자연적 합리성을 아우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신약성서의 혁명적 메시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려고 했고,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두어 역사적 소명을 이

12)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이러한 전개 이면에는 서구 근대법의 형성과정이 존재한다. 달리 말해, 프로테스탄티즘은 서구 근대법의 형성을 통해 ‘권력을 통한 정치’를 ‘법을 통한 정치’로 대체하고자 했으며, 오늘날 이 이념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원리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칼뱅주의 법이론의 발생사를 파헤친 존 위티에 따르면, 칼뱅주의는 신앙의 자유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법적 권리로 개념화한 뒤, 그것으로 통치 권력의 한계를 규정했고, 신앙의 자유에서 시작된 법적 권리의 목록은 재산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기본적 권리의 평등사상은 프로테스탄트 공동체에서 성도의 자격을 단지 성찬과 같은 의례에 참여하는 종교적 자격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법적 자격으로 변모시켰고, 공동체 내부에서 대의 정부, 법의 지배, 삼권분립과 같은 정치제도의 혁신을 촉발했다. 아울러 이 성적 자연법의 논증을 따라 일반 계약법의 원리가 서구 근대법의 토대를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혼인법의 본질이 성례로부터 계약으로 바뀌었으며, 형사 절차도 증거와 양심에 의한 재판으로 초점으로 체계화되었다(Witte, 정두메 역, 2015).

론 까닭에 갑자기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는 것이다.¹³ ‘자연권 공화국’으로 귀결된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는 왈저의 이와 같은 평가를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유산이 해체 또는 붕괴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우선 앞서 언급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네 가지 과제를 환기하면서,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성과를 평가해 보자.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우선 종교적 의례를 나누는 개개의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를 회중, 감독, 의회라는 핵심 제도들을 통해 재조직했고, 이를 다시 신조와 교리를 공유하는 교파 또는 교단으로 결합했다. 나아가 여러 교파 또는 교단 사이의 관계를 뜰레랑스라는 새로운 정치적 규범으로 조율했으며, 그로부터 종교적 자유-국교 부인-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정치원리들을 차례로 발전시켰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이와 같은 성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회만이 아니라 세속적 정치권력의 재구성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가 천부적 자연권에 따른 뜰레랑스와 혼합정체 및 법의 지배, 그리고 이 모두를 규정한 성문헌법을 정치공동체의 중심에 놓는 ‘자연권 공화국’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명예혁명에서 미합중국의 독립혁명을 잇는 앵글로-아메리칸 시민혁명의 계보에서 탄생한 이 새로운 국가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변화라는 맥락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Zuckert, 1996).

미합중국을 중심으로 관찰할 경우 ‘자연권 공화국’에서 뜰레랑스는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제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Witte & Nichols 2011: Ch.2-4). 첫째는 뜰레랑스를 신앙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권리로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는 곧바로 신체의 자유, 소유권,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으로 확대되며 이른바 권리장전의 형식으로 목록화되었다. 둘째는 이처럼 권리의 형태로 확인된 뜰레랑스의 보장 책임이 교단 또는 교파로 나누어진 프로테스탄트 교회조직이 아니라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특정한 형태의 정치공동체에 부여하는 단계이다. 앞서 말한 대로 존 로크의 관용론은 이에 관한 대표적인 입론이다. 셋째는 앞서 말한 ‘권리장전’을 자연권 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편입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권 공화국의 헌법은 ‘성문헌법’으로 진화했다. 넷째는 제도적 교회와 자연권 공화국의 관계를 국교의 부인 및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통해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역사적인 이유로 국교 체제를 유지한 정치공동체에서도 국교의 실질적인 의미는 점차 의례적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정치와 종교의 제도적 분리가 헌법적 정상상태라는 점은 갈수록 분명해졌다.

13) “...청교도 이데올로기는 현실 경험에 대한 대응이었고, 그러므로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었다. 왕정 복고 후 수년 내에 영국 정치에서 전투적 성도들이 사라진 현상은 이러한 문제들이 시간적으로 붕괴 기간 및 정치적 재건 기간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거나 덜 두려워하게 되자 청교도주의는 갑자기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청교도 체계의 특정 요소들이 새로운 일상에 적합하게 변형되었고, 다른 요소들은 잊혔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성도는 ‘신행’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신중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단지 일상적인 불안만으로 움직이게 되어 로크적 사회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다.”(Walzer, 1982: 312)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자연권 공화국’은 세속정치의 고유성을 주장하면서도 초월적 종교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진 국가, 즉 종교적 경건에서 출발하여 세속정치를 수행하는 국가를 표상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처럼 독특한 국가가 계속하여 존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우선 프로테스탄티즘이 시민사회 속에서 강력한 종교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단지 신자의 숫자나 교회의 규모만이 아니라 성서적 합리성과 자연적 합리성을 아우르는 종합적 차원의 설득력에서도 탁월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으로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치참여가 성문헌법의 정신과 제도를 깊이 존중하는 가운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속적 정치권력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초월적 의미획득에 관하여 그 한계를 분명하게 짚는 정치적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에너지와 열정을 계속하여 공급하고, 초월적 자유와 원초적 평등의 이념은 물론 자유와 민주의 모순적 길항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헌정주의적 정신과 제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환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헌정주의의 근대적 혁신, 즉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모판으로 인식했던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가들의 이념과 그 이후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가 쌓아온 역사적 지혜를 전통을 계속하여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프랑스대혁명의 비참하고 파멸적인 전개과정에 끝없는 실망감을 가지고 1830년대 초반 미합중국을 찾았던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합중국이라는 자연권 공화국에서 바로 이와 같은 조건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갖가지 자율조직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지도자들이 법률가들과 함께 일상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면서도 세속적 정치권력 자체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 토크빌 연구자인 이황직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이황직, 2018: 195-6).

“...미국의 개신교는 유형의 성례전 대신 무형의 가치에 충실하다. 이들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세의 행복을 존중한다. 민주주의와 평등화에 대해서도 지지한다. 적어도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은 현세의 일과 내세의 일이 구별되고 상충된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겹치고 만나는지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종교는 국가를 직접 지배하지 않고 대신 세속 시민의 내면에 도덕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율법을 통한 외적 강제가 아니라 종교성을 내면에서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개인 스스로의 마음을 규제할 양심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미국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교회가 된다. 적어도 토크빌 시대의 교회는 결코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이러한 모습은 크게 보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19세기 이후 서구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해지고 그 자리를 자연과학의 영향력이 채우기 시작하자 곧바로 실증주의(positivism)의 이름으로 자연적 합리성을 과학적 합리성으로 승격하여 성서적 합리성을 철저하게 배격하려는 운동이 개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주도해 온 관계주의는 두 개의 흐름으로 분열된다. 하나는 ‘이신론’(理神論 Deism)으로서 과학적 합리성의 우위를 수용하면서 세계에 대한 신적 개입까지도 과학적 합리성으로 환원하려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인격신론’(人格神論 Theism)으로서 여전히 오로지 성서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세계에 대한 신적 개입의 근본적인 자의성을 확인하려는 흐름이다(Friedrich, 1964: Ch.4). 도식적인 이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19세기 서구의 프로테스탄트 사회, 특히 미합중국에서 전자는 앞서 말한 이원주의를 흡수하면서 유니테리언리즘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아갔고, 후자는 그 반대편의 분리주의와 결합하면서 대각성 운동과 근본주의 신학의 토대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이와 같은 지적 분열은 특히 19세기 들어 서구사회에서 본격화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들이 정돈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크게 보아 이들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거나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선택 가운데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이신론자들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율균형체계를 받아들여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대세에 편승하고자 했고, 인격신론자들은 프로테스탄트 특유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선과 악의 투쟁 구도를 이용하여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의미를 단죄하고자 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전자는 적자생존·약육강식·우승열패를 내세우는 사회진화론으로 대체되어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제국주의적 식민주의로 이어지는 이념적 토대를 제공했고, 후자는 제국주의적 식민주의 속에서 자라난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도, 특히 공산주의에 대한 종교적 투쟁의 기초로 탈바꿈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 분열이 프로테스탄트의 조직적 분열에 연결되면서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대한 대응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미 교단별로 분열되었으며,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후 거듭되는 전쟁 속에서 국민국가 단위로 다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후 서구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이와 같은 지적·조직적 분열은 로마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광대한 단일 조직을 바탕으로 일종의 농업적 대안 경제를 실험하면서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경계하다가 20세기 들어 전체주의의 광기에 휩쓸리고 난 다음 신토마스주의의 영도 아래 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Nichols, 서영일 역, 1994).

이 과정에서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성과는 초월적 종교성의 차원을 최

소화하거나 아예 소거하려는 ‘실증적 주권국가의 이념’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결과는 서구 근대의 주도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20세기 들어 세계 곳곳에서 주권국가 스스로 초월적 종교성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정치권력 그 자체를 숭배하려는 일종의 유사국교주의 형태들로 나타나기까지 했다. 여기에는 20세기 전반을 휩쓴 파시즘, 나치즘, 군국주의는 물론이려니와 공산주의 블록을 예외 없이 휩쓸었던 지도자 신격화 및 숭배 전통,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이슬람이나 힌두교의 근본주의 종교화 및 정치적 전면화가 모두 포함된다. 이 시도들은 오늘날까지도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성과가 무색하리만큼, 세속적 정치권력이 스스로 정치와 종교의 통합을 추구하고 정치공동체 각 구성원의 종교적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를 세계의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재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앞서 말했듯이 관계주의의 분열은 교회 정치의 영역을 인격신론의 영향권 안으로 축소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모판이자 실험장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위상이 특정한 교파 또는 교단의 내부 문제로 국한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미합중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대혁명을 전후하여 서구 근대의 세속적 정치권력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들을 정면으로 수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교회 정치의 범주를 벗어나 실증적 주권국가를 단위로 이해되고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헌법재판민주주의-직접행동민주주의로 이어지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계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자연권 공화국’의 세속화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종교적 영향력이 적어지고 非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및 무신론을 포함한 타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고, 결국 프로테스탄티즘을 여러 종교 중 하나로 치부한 뒤, 세속적 정치권력에 대하여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경향을 낳았다(이석민, 2022).

따라서 이 시기 이후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주된 문제는 실증적 주권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흐름에 적응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는 안팎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했다. 우선 오랫동안 모더니티를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던 로마가톨릭 교회가 톨레랑스-종교적 자유-국교 부인-정치와 종교의 분리 순으로 ‘자연권 공화국’의 정치원리가 확립된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특히 유럽 각국에서 보수적인 프로테스탄트들과 연대하여 기독교 정당(연합)을 결성하려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하여 이미 인격신론의 영향권 안으로 축소된 프로테스탄티즘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따라 도시화의 진행, 대중의 출현, 신자의 고객화가 진행되면서, 신과의 인격적 소통을 강조하고 종교지도자의 대중적 카리스마를 중요시하는 신학적 지향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이후 서구 프로테스탄티즘이 경험한 대각성 운동, 오순절 운동, 세대주의 운동 등은

신자 개인의 회심이나 구원의 확신, 종말에 대한 믿음이나 성령체험 등을 강조하면서 종교지도자의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중시하는 일관된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Nichols, 서영일 역, 1994).

이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는 기왕의 ‘엘리트의회주의 vs 자치공동체주의’의 구도를 우회하여 이른바 메가처치의 형성과 함께 ‘지도자감독주의’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변화 및 신학적 지향의 변화와 함께 대중적 소통을 가능케 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극적인 발전, 특히 전기, 앰프, 거대집회장, 라디오, 영상매체 등 커뮤니케이션 수단 및 이를 활용하는 ‘부흥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은 현상이다(신광은, 2009). 이를 통하여 ‘지도자감독주의’는 대의민주정치의 의회나 자치공동체의 회중처럼 신중하게 고안된 정치적 대표과정을 거치지 않고 익명의 대중과 극소수의 정치지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¹⁴

이러한 상황에서 ‘인격신론’에 공감하면서도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유산을 발전시키려는 일단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교회 정치의 무대를 전격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항하고자 했다. 이는 전통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무대였던 제도적 교회 조직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프로테스탄트 사회조직들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세속정치에 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였다. 예를 들어 미합중국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주축을 이룬 각종 선교단체, YMCA/YWCA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기독교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 병원, 언론,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조직, 노동조합, 국제조직들은 노예제 폐지 운동, 남녀평등운동, 절제 운동, 평화 운동, 국제원조운동 등을 제안하고, 조직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 노선을 추구했다(류대영, 2007: 14장). 이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치적 영향력이 심대했던 유럽 각국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조직하여 세속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흐름이 생기기도 했다.¹⁵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이러한 변화는 분명 불가피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경건에서 출발하여 세속정치를 수행하는 ‘자연권 공화국’이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소산임을 기억할 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측면도 존재한다. 우선 각종 사회조직이나 기독교 정당을 통한 세속정치참여의 경우,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을 수호하려는 메타적 차원을 포기하고 ‘자연권 공화국’ 내부의 이익정치로 축소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광대한 단일 조직을 바탕으로 특히 제국주의적 식민주의가 종말을 고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연법사상의 부활을 지원하면서 세계인권선언 등의 인권 헌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일관성을 가지고 메타적 차원을 견지해 온 것과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이 시기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 내부

14) 신광은은 이러한 과정에서 태어난 새로운 교회를 ‘메가처치(mega church)’라고 부르면서, 그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으로 대부흥운동과 세계선교운동을 지목하고 있다(신광은, 2009: 3-4장).

15) 이상의 여러 변화 및 이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대응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을 하나만 꼽으려면 단연 신칼빈주의의 개조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지목해야 할 것이다.(Kuyper, 박영남 역, 1971 ; 이국운, 2013)

에 ‘지도자감독주의’가 등장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각종 사회조직이나 기독교 정당을 통한 세속정치참여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조직 내부의 정치적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한 연결 고리로서 소수의 지도자 감독이 유용성을 가지는 까닭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이 붕괴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성격이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속적 정치권력이 사회 전체에 요청하는 세속적 차원의 당위로 변모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모판이자 실험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채, 엘리트의회의 패권추구와 자치공동체의 지리멸렬을 거쳐 점차 ‘지도자감독주의’에 기울어졌으나, 대중스타를 방불케 하는 소수의 지도자 감독과 그 카리스마에 의존적인 대형교회 체인망은 프로테스탄티즘의 본질을 위협하는 측면마저 내포하게 되었다(신광은, 2009: 7장 이하).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심화하며 동시에 자기혁신을 도모해 왔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과연 이대로 좌초하고 말 것인가?

V.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의 관계

대한민국은 非서구 국가들 가운데 비교적 단기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확립한 매우 드문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공의 요인으로서 非서구 사회로서는 예외적으로 커다란 기독교 신자집단의 규모, 특히 전인구의 1/4에 육박한 적이 있었던 프로테스탄트들의 존재를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기독교 신자, 특히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착·확립에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통하여 이바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의 첫머리에 언급했듯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비판적으로 전망하게 만드는 2023년의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관계를 자문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로 이 글이 주목한 것은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전개 및 경건한 세속정치의 붕괴과정을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말의 선교 초기부터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초기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가들의 핵심 주장과 신정주의적 기획의 매혹,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고민 및 그 성과인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기획의 위대함, 나아가 경건한 세속정치의 조건이 붕괴한 이후에 등장한 ‘실증적 주권국가’의 위험성 등 앞에 동시에 노출되었고, 그 각각을 연결하는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숙고할 여유가 없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맥락과 이해관계,

또는 심지어 각자의 편의에 따라 서구 근대의 정치신학적 자원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폐기 하곤 했다.¹⁶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각각의 교파적 전통을 지키는 대신, 특이한 교회정치적 혼종(hybrid)을 낳게 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대부분의 교파가 장로교의 정치제도인 장로직제를 그것도 임기직이 아니라 항존직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나(김명운, 2009: 52-55), 최근 들어 교파 구분 없이 대형교회의 지역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종의 지도자감독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예시할 수 있다.¹⁷ 교회직제연구자인 김명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김명구, 2009: 41).

“...한국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의 영향으로 장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한국 장로교회도 유럽의 개혁교회와 달리 감독교회적 성격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두 교회 정치제도도 두 수직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개개의 교회나 교단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주의 등 프로테스탄티즘 내부의 다양한 교파들은 각각의 교회 정치 모델들을 서구로부터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들 각각이 자유민주주의 실험의 결과라는 것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관찰로는 서구 근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한 축이었던 회중에 토대를 둔 자치공동체주의가 거의 자취를 감춘 가운데, 항존직 장로제도에 기초한 엘리트의회주의와 카리스마적 목회자에 의존적인 지도자감독주의가 어색하게 공존하고 있는 정도가 솔직한 현실이 아닐까 싶다. 그나마도 엘리트의회주의자들은 교회 안팎의 패권을 추구한다는 추문에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 핵심인 엘리트들의 충원과정은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감독들에 의하여 왜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항해야 할 자치공동체주의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소규모의 자치공동체들은 지리멸렬한 경우가 많고, 어찌다 등장하는 대규모의 자치공동체들(대형교회) 역시 목회자를 중심으로 지도자감독주의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스스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지도부를 자

16) 이 점을 김명구는 한국 장로교회의 조직구조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 장로교회는 특히 노회에 중요한 권한이 주어져 있고, ① 장로들에 의한 통치 ② 교직의 평등 ③ 교회회의 단계적 구성이라는 세 가지 정치원리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유럽의 개혁교회 전통과도 다르고 미국 장로교회의 실제와도 다르다. 한국 감리교회 역시 개교회의 담임목사를 임명하여 파송할 수 있는 감독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감독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다(김명구, 2009: 25-6).

17) 수년 전부터 한국 사회의 대형교회들이 지역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종의 체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스크린 예배를 가능케 하는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면서 사실상 프로테스탄트의 교회 정치를 지도자감독들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대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 관한 한, 한국 사회의 대형교회들은 가히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임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교회의 세습 파문과 교단 총회의 불법 선거 논란 등으로 안팎의 비판에 시달리면서도, 프로테스탄트 각 교단 또는 교단 연합체의 대표성을 차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세속적 정치권력의 핵심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록 여러 차례의 기독교 정당운동은 실패를 거두었지만, 세속적 정치권력에 대한 지지와 강복을 제도적 교회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교환하는 전통적인 유대관계는 끈질기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서 개별 교회 차원과 국가교회 차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 또는 비대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국가교회 차원의 정치적 의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며, 개별 교회 차원의 교회 정치는 아예 조직 자체가 미비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에서 국가교회 차원이 비대칭적으로 강화된 까닭은 지난 19세기 말 이래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친미개화반공노선이라는 특유의 정치노선에 따라 한반도에서 근대국가주의를 선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일제 식민 지배 속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가 종교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안 정치 운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9). 그러나 광복 이후 특히 한국 전쟁과 군사정권을 거치는 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오히려 반공주의와 경제개발을 축으로 하는 ‘실증적 주권국가 이념’에 국가교회 차원에서 종속되었고, 그와 같은 특징은 민주화 이후에도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류대영, 2018: 11~14장).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프로테스탄트 인구의 현격한 감소와 함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양극화와 함께 공동체 상실의 위기에 부딪히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 자체의 급격한 위축이 예고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마주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연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로마가톨릭 교회의 벤치마킹이나 ‘정치로부터의 철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본질을 포기하는 선택이며 세계-형성적 기독교로부터의 퇴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원칙을 저버리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의 가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규범적 차원에서 자유의 초월적인 정초, 원초적인 평등과 민주정치의 연결, 관용의 지속적 확대 지향성, 죄의 편만한 영향력과 정치적 훈련의 필요성, 모범의 정치라는 이상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제도적 차원에서도 종교적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세계-국가-지역을 연결하는 중층적 대의 정체의 필수성, 자유민주주의 실험의 다양한 가능성, 헌법이라는 정치적 도구와 그 속에 포함된 미묘한 정치적 지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비롯한 세련된 정치제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하나는 다시금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좁은 의미의 교회조직에서부터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를 재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감하게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새로운 무대를 찾는 것이다. 나는 이 두 가지 모두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자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전자의 시도가 필연적으로 동반할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의 신정주의적 기획에 대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 목회자들이 성숙한 비판 및 대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자연권 공화국이라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정치의 非신정주의적 기획마저 위태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치는 좁은 의미의 제도적 교회, 즉 목회자중심의 종교조직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새로운 무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주목할 대상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테스탄트 결사체들이다. 굳이 프로테스탄트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면, 다양한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결사체들로 범위를 확대해도 무방하다. 각종 선교단체, YMCA/YWCA와 같은 사회조직, 기독교 대학을 비롯한 각종 학교, 병원,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조직, 노동조합, NGO, 나아가 기독교 정당과 같은 결사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목회자중심의 종교조직(Churchian network)와 구분되는 크리스천 결사체(Christian association)로서 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 교리인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의 일부가 된다.

흥미롭게도 크리스천 결사체들을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주요 무대로 삼는 것은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경험했던 바이다. 19세기 말 이후 한반도 역사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유민주주의 운동에서 지도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로 다음의 다섯 시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①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이끌던 대한제국 초기 ②3.1운동에서 상해임시정부, 독립군, YMCA, 신간회 등으로 이어진 독립운동기 ③조만식과 조선민주당이 활약한 해방공간의 초기 ④박정희의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1970년대 중반기 ⑤민주화이행국면에서 시민운동을 향도했던 경실련 초기. 이 시기들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공유한 특징은 한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비교하여 자유민주주의 운동에 더 충실했다는 점과 함께 크리스천 결사체들이 그와 같은 정치적 참여의 조직적인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무대를 전향적으로 옮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에 관하여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깊은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티즘은 종교적 네트워크를 장악한 대형교회와 소수의 지도자감독이 대표하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특이한 변형으로 퇴행할 가능성마저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을 오히려 배반하고 있는 목회자중심의 종교

조직을 과감하게 우회하여 다양한 크리스천 결사체들을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무대로 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면, 혹시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서 결사체의 형태로 크리스천들을 결집하고, 문제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들의 활발한 개입과 연대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을 심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제안은 한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동떨어진 현재의 교회 정치로부터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당분간 이격시켜 절망과 체념을 떨치고 개혁 추진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치의 민주화를 넘어 사회 각 분야 및 국제적 차원의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심화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프로테스탄트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크리스천 결사체라는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새로운 무대를 통해 성숙한 정치적 엘리트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 즈음에는 제도적 종교조직에서도 다시금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주된 무대를 제도적 종교조직에서 크리스천 결사체로 옮기려면 많은 재조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목회자중심의 종교조직에 일방적으로 결부된 프로테스탄트들의 조직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학적 강조점의 재조정과 함께 재정 운영, 엘리트의 양성과 배치 등 손보아야 할 일이 여럿이다. 이를 위한 준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종합적인 개혁의 청사진을 짜고 동시에 이를 구현할 계기를 마련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뜻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두식 (2010).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서울: 흥성사.
- 김명구 (2009). 한국 교회 정치제도의 특성과 변천-장·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정치와 민주주의 자료집**. 서울: 바른 교회 아카데미.
- 김명운 (2009). 한국 교회의 직제와 갈등에 관한 사례연구, **교회 정치와 민주주의 자료집**. 서울: 바른 교회 아카데미.
- 김용환 (1998). **관용과 열린 사회**. 서울: 철학과현실사.
- 노명식 (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그 비판적 연구**. 서울: 민음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9). **3·1운동과 한국 교회의 역사 참여**. 3·1운동 70주년 기념행사 보고서.
- 류대영 (2018). **한 권으로 읽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류대영 (2007). **미국 종교사**. 청년사.
- 류의근 역 (2022). **성도들이 일으킨 혁명-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급진주의 정치**. Walzer, M. (1982). *The Revolution of the Saints-A Study in Origins of Radical Politics*. 논산: 대장간.
- [Ryou, E. G. (2022). *The Revolution of the Saints-A Study in Origins of Radical Politics*. Nonsan: Daejanggan. Trans. Walzer, M. (1982). *The Revolution of the Saints-A Study in Origins of Radical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 박동천 역 (2012).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2-종교개혁의 시대**. Skinner, Q. (197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2 The Age of Reformation*. 서울: 한국문화사.
- [Park, D. C. (2022).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2 The Age of Reformation*. Seoul: Hankukmunhwasa. Trans. Skinner, Q. (197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2 The Age of Re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박상익 (2008). **불굴의 이상주의자 밀턴 평전**. 서울: 푸른역사.
- 박성수 역 (2006).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Weber, M. (1905).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서울: 문예출판사.
- [Park, S. S. (2006).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Seoul: Munyechulpansa. Trans. Weber, M. (1905).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Pantianos Classics.]
- 박영남 역 (1971). **칼빈주의**. Kuyper, A. (1943). *Lectures on Calvinism*. 서울: 세종문화사.
- [Park, Y. N. (1971). *Lectures on Calvinism*. Seoul: Sejongmunhwasa. Trans. Kuyper, A. (1943).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박은구 역 (2004). **프로테스탄티즘-혁명의 태동**. Ozment, S. (1993). *Protestants: The Birth of a*

- Revolution*. 서울: 헤안
- [Park, E. G. (2004).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 Seoul: Heyan. Trans. Ozment, S. (1993).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 New York: The Crown Publishing Group]
- 서영일 역 (1994). **현대교회사-서구의 세속화**. Nichos, J. H. (1956). *History of Christianity, 1650-1950: Secularization of the West*.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Seo, Y. I. (1994). *History of Christianity, 1650-1950: Secularization of the West*. Seoul: Gidokkyomunseosengyoheo. Trans. Nichos, J. H. (1956). *History of Christianity, 1650-1950: Secularization of the West*. New York: Ronald Press Co.]
- 손병호 (1984). **교회정치학 원론**. 서울: 양서각.
- 신광은 (2009). **메가처치 논박**. 서울: 도서출판 정연.
- 신원하·권연경 역 (2008). **예수의 정치학**. Yoder, J. (1994). *The Politics of Jesus: Vicit Agnis Noster*. 서울: IVP
- [Shin, W. H. & Kwon, Y. K. (2008). *The Politics of Jesus: Vicit Agnis Noster*. Seoul: IVP. Trans. Yoder, J. (1994). *The Politics of Jesus: Vicit Agnis Noster*. Grand Rapids: Eerdmans.]
- 이국운 (2007). 프로테스탄티즘과 입헌주의. **신앙과 학문**, 11(2), p.132-168.
- [Lee, K. W. (2007). Protestantism and Constitutionalism. *Faith&scholarship*, 11(2), 132-168.]
- 이국운 (2008). 자유민주주의의 정상화 문제(II)-참여자의 관점. **법과 사회**. 34권, p.23-52.
- [Lee, K. W. (2008). The Normalization Issue of Liberal Democracy in Korea(II): A Participant's Viewpoint.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no.34, 23-52.]
- 이국운 (2010). **헌법**. 책세상.
- 이국운 (2013). 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3), 127-155.
- [Lee, K. W. (2013). The Acceptation of Abraham Kuyper's Political Thought in Korean Society. *Faith&scholarship*, 18(3), 127-155.]
- 이국운 역 (2017). **출애굽과 혁명**. Walzer, M. (1986). *Exodus and Revolution*. 논산: 대장간.
- [Lee, K. W. (2017). *Exodus and Revolution*. Nonsan: Daejangan. Trans. Walzer, M. (1986). *Exodus and Revolution*, Basic Books.]
- 이국운 (2019).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헌정주의자의 시각. **공법연구**, 47(4), 89-116.
- [Lee, K. W. (2019). What is Liberal Democracy? -An Answer from Constitutionalism-. *Public Law*, 47(4), 89-116.]
- 이국운 (2020). 프로테스탄티즘과 서구 근대법의 균열구조, **사회이론**, 58호, 57-102
- [Lee, K. W. (2020). Protestantism and the Structural Crack of Western Modern Law.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vol.58, 57-102.]

- 이석민 (2022). 서구 근대에서 정교분리원칙의 발전, 이국운 편. **이 땅에서 자유·정의·평화·법**, 한동대학교 출판부.
- 이황직 (2018). **민주주의의 탄생-왜 지금 다시 토크빌을 읽는가**. 경기: 아카넷.
- 임희완 (1985). **청교도혁명의 종교적 급진사상-원스탈리를 중심으로**. 경기: 집문당.
- 정두메 역 (2015). **권리와 자유의 역사-칼뱅에서 애덤스까지 인권과 종교 자유를 향한 진보**. Witte, Jr. J. (2008). *The Reformation of Rights: Law, Religion and Human Rights in Early Modern Calvinism*. 서울: IVP.
- [Jeong, D. M. (2015). *The Reformation of Rights: Law, Religion and Human Rights in Early Modern Calvinism*. Seoul: IVP. Trans. Witte, Jr. J. (2008). *The Reformation of Rights: Law, Religion and Human Rights in Early Modern Calvin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정종훈 (1999). **기독교 사회윤리와 민주주의**. 경기: 한국 장로교출판사.
- 정진홍 역 (1983). **책임적 자아**. Niebuhr, H. R. (1963/1999). *The Responsible Self-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Jeong, J. H. (1983). *The Responsible Self-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Press. Trans. Niebuhr, H. R. (1963/1999), *The Responsible Self-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Westminster John Knox Press(new edition).]
- 조기제 역 (1999).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Dahl, R. (1991). *Democracy and its Critics*. 서울: 문학과 지성사.
- [Cho, K. J. (1999). *Democracy and its Critics*. Seoul: Munhakgwajisengsa. Trans. Dahl, R. (1991). *Democracy and its Critics*. Yale University Press.]
- 조승래 (2010). **공화국을 위하여-공화주의의 형성과정과 핵심사상**. 서울: 길.
- 주인돈 (2011). **성공회, 열린 교회로의 초대**. 서울: 푸른솔.
- 한재동 (2012). 회중교파, 침례교파, 크리스천교파 및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직제, 바른교회 아카데미 편. **교회직제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1-220면.
- 홍병룡 역 (2006). **완전한 진리**. Percy, N. (2004).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서울: 복있는 사람.
- [Hong, B. R. (2006). *Total Truth*. Seoul: Hismessage. Trans. Percy, N. (2004).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Illinois: Crossway Books.]
- 홍병룡 역 (2007).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때까지**. Walterstoff, N.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서울: IVP.

- [Hong, B. R. (2007).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Seoul: IVP. Trans. Walterstoff, N.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 홍세화 (2009).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개정판), 경기: 창비.
- 황은영 역 (2012). **삼위일체와 교회**. Volf, M. (1997).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서울: IVP.
- [Hwang, E. Y. (2012).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Seoul: IVP. Trans. Volf, M. (1997).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Eerdmans.]
- 황주홍 역 (199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Bobbio, N. (2005). *Liberalism and Democracy*. Martin Ryle & Kate Soper. 서울: 문학과지성사.
- [Hwang, J. H. (1992). *Liberalism and Democracy*. Seoul: Munhakgwajisengsa. Trans. Bobbio, N. (1985/2005). *Liberalism and Democracy*. Martin Ryle & Kate Soper. Verso.]
- Friedrich, C. J. (1964). *Transcendent Justi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Hall, D. W. (1994). The Pastoral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Church Government, in Hall, D. W. and Hall, J. H. (Ed.) *Paradigms in Polity-Classical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Grand Rapids: Eerdmans.
- Locke, J. (2018).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MI: Gale ECCO.
- Luther, M. (2003), *On Christian Liberty*, MN: Fortress Press
- McGrath, A (2007).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New York: HarperOne.
- Waldron, J. (2010). The Image of God: Rights, Reason, and Order, in Witte, Jr. J. and Frank S. Alexander (Ed.) *Christianity and Human Rights-An Introductio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16-235.
- Witte, Jr. J. & Nichols, J. A. (2011), *Religion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al Experiment*(3rd edition), UK: Westview Press.
- Zuckert, M. (1994). *Natural Rights and the New Republicanism*,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Zuckert, M. (1996). *Natural Rights Republic*, IN: Notre Dame University Press.

자유민주주의와 교회 정치

Liberal Democracy and the Church Politics

이국운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이 글은 오늘날의 한국 상황에서 프로테스탄트 정치 운동의 조건과 한계를 교회 정치 차원에서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2000년대 이후 거둬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정치로부터의 철수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원칙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티즘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저자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그 출발점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에토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 모든 인간의 자유를 초월적으로 정초하면서 원초적 평등과 정치적 자동성의 이념을 차례로 정당화시켰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나간 수 세기 동안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의 공동체(교회)가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실험장으로서 다양한 정치 노선들을 발전시켜왔음을 제시한다. 문제는 19세기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치 운동의 무대가 실증적 주권국가로 옮겨지면서 제도적 교회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에토스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최근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실패를 이와 같은 장기적 추세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차제에 프로테스탄트 정치 운동의 무대를 옮길 것을 제안한다. 흔히 교계(敎界)라고 지칭되는 목회자 중심의 종교조직(Churchian network)을 넘어서서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천 결사체들(Christian associations)들을 프로테스탄트 정치운동의 새로운 무대로 삼자는 것이다.

주제어: 자유민주주의, 교회 정치, 프로테스탄티즘, 종교혁명, 한국 교회